



그동안 몰랐던 돈 관리 팁

지금까지 놓친 팁 한 번에 보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금지돼요

2023.11.06

이 원고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를 두고 그간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는데요.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그동안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본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개미 투자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볼게요.

역사상 네번째 공매도 금지예요

정부가 5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바로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전 종목이 공매도 금지에 해당돼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었던 2011년, 코로나 확산으로 증시가 불안정했던 2020년에 이어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거예요.

공매도에 대한 개미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은 공매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빌 공(空)자를 써서,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는 뜻이에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인데요.

내가 주식을 빌려 팔 때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갚을 때 이득을 봐요.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될 때 쓸 수 있는 투자 전략이에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처럼 공매도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었어요.

- 자금력이 막강한 기관과 외국인은 담보를 105%만 걸어놓아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개인은 120%를 걸어야 해요.
- 또 기관은 빌린 주식을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제한이 없는 반면, 개인은 90일 안에 갚도록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기관이 대량으로 공매도를 실시하면, 매번 개미만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떠안는다는 불만이 누적돼 온거예요.

공매도 금지에 신중했던 이유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에 신중한 모습이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정적인 정보'가 시장에 반영돼, 주가에 지나치게 거품이 끼거나 가격이 요동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금지했던 공매도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350개 종목에 한정해 재개했던 거예요.

당국은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등은 사후 적발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둘째,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공매도를 허용해야 해요.

우리나라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제공하는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는 것을 추진해왔어요. 외국인의 투자가 더 많이 유입돼 시장이 한층 커지기를 기대해 왔지요.

그런데 이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여러 기준에 '공매도 허용'이 포함돼 있어요. 지난 6월 MSCI에서 한국 증시를 선진국 후보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제한적 공매도'를 들기도 했고요.

따라서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로 선진국 지수 편입은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우세해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어요

금융당국이 신중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하다 적발된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이 기관들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공매도를 한 뒤, 나중에 빌려서 수량을 채우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해왔는데요.

'설마' 하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폭발했어요.

당국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전면 금지 카드를 꺼냈어요.

어떻게 제도를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려요.

앞으로 기관의 공매도를 밀착 감시하고, 담보율이나 증거금 등 기관과 개인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도 크게 개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요.

주가 오를까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지목돼 왔던 공매도가 금지됐으니, 이번 조치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반대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동안 시장 추이를 보면 똑같이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라도 주가가 오르내리는 경향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난 2월 자본시장연구원도 “2020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가 위축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글로벌 공유 오피스 위워크가 이번 주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뉴스가 궁금하다면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경제

품어두면 쓸모 있을 경제소식을 전달합니다.

지금 인기있는 글

법인 명의 슈퍼카,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뀌요

정책·뉴스

몇년 전 받은 전세 대출 금리 자꾸 올라요. 이자 낮출 수 없나요?

재테크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미래가 올 거예요

연금 # 정책·뉴스

- 토스 오늘의 머니 팁 토스 회원의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토스피드 \(토스 공식 블로그\)](#)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된 아티클 및 공신력 있는 금융 기관의 아티클 등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 구독 서비스에 동의하면 새 글 알림을 보내드립니다.